복지사각SOS 안전망 강화

익산시, 위기가구 상시 신고창구 운영… 사각지대발굴 지원강화 신규 사업 14개 추진

익산시가 위기가정 '스스로 SOS' 요청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찾아가는' 제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지난 3일 비수급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선제적인 발굴, 지원, 관리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각지대 시스템 안전망 강화'라는 복지강화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생활고에 시달려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주변에 상황을 알리지 못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적극적 외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14대 신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9월부터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톡'을 운영한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소통창구이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비대면으로 복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주 1회 정기적으로 복지정책 및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또 다른 신고 창구로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구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상담번호는 1577-0072이며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복지정책과로 연결되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전력·통신데이터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 감지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위급상황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서비스다.

9월부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오전 다이로움 밥차 사업시 운영할 예정이다. 전입·출생·사망신고 주민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연계하여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발굴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는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지원과 민간 복지지원을 연계하여 대상자를 지원한다.

도내 최초로 시행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가구에게 시 예산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 700여 세대에게 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거주 주택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상담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발굴·지원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새로 신설 예정인 '우리마을 돌봄단'이 주1회 안부확인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추진해 단순 지원으로 끝나는게 아닌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까지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26일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김영일 군산시의장,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26일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일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여성의 사회적 관념과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맞고 있는 역할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김효신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군산시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높이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일 의장은"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미래의 군산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는 더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시민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항상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현장의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기자

전북 지자체 최초 베트남 우호도시 협약

군산시, 동남아 신흥국가와 경제·관광·인적교류 확대 '눈길'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전북 지자체 최초로 동남아 신흥국가 베트남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우호도시 협약 체결식에는 강임준 시장, 김영일 시의장 등 시 대표단과, 황부따잉(Hoang Vu Thanh) 붕따우시장을 비롯한 마이 응옥 투언(Mai Ngoc Thuan) 붕따우성 인민의회 부의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호도시 협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던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주한베트남 대사,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도 영상으로 협약체결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양 도시는 경제, 무역, 문화, 교육, 보건, 관광, 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붕따우시는 인구 52만명, 면적 140㎢ 규모로 4개의 해변에 둘러쌓인 베트남 동남부 항구도시이자 최근 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요산업은 관광업, 산업, 어업이며 한국기업의 베트남시장 진출 지역 중 7위 해당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내륙 및 해상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전북 지자체 최초로 동남아 신흥국가 베트남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내 기초 지방정부에서 베트남과 우호도시 체결이 전무했던 상황을 비춰볼 때, 이번 베트남 붕따우시와 군산시 협약은 도내 농·수산업 업계와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코로나 방역 현장 지킨 '의료 영웅' 표창

익산시가 코로나19 상황 속 방역 현장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료 영웅들에게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유공 의료기관 시장 표창 수여식'을 열고 방역에 헌신한 16개 의료기관 대표에게 익산시장 유공 표창패를 수여했다.

수상대상자는 원광대학교병원·익산병원·온누리아동병원·수사랑병원·우석노인요양병원·익산미소요양병원·익산제일병원·모아산부인과의원·사랑내과의원·메디하우스요양병원·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아이세상소아청소년과의원·송헌섭소아청소년과의원·365연합의원·즐거운약국,나인투나인대학로약국 16개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2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앞장서는 한편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의료 방어에 집중했다.

특히 2020년 말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돼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는 호흡기·발열환자 전담 진료로 의료진 보호와 함께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다. 확진자 급증 시기에는 주말·휴일 검사·진료를 확대하고 자율입원 병상을 제공했다.

또한 분만 또는 신장투석 환자에게 특수병상을 제공하고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등) 판매 약국 지정 등으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코로나19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헌신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평생학습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익산시가 교육도시 면모에 맞는 시민참여 평생학습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26일 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제1기 익산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음'은 평생학습 교육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등 익산시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다.

제1기 이음 위원회는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실무자, 학습동아리 대표, 강사, 활동가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3년 말까지다.

위원회는 앞으로 익산시 평생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프로그램) 제안,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우수사례 공유 등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익산시 평생교육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연중무휴 공공 심야약국 운영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단골온누리약국(하나운로 38, ☎ 465-9998)이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휴일과 심야시간에 지역주민이 의약품 구매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에게 복약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결과 심야시간 하루 평균 15건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심야시간과 휴일 꼭 이용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단골온누리약국 박종길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5~20명 정도 오시는데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늦은 밤 아이가 아프면 당황스럽고 병원 응급실 외에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야간시간대 약국 운영에 대해 많이 호응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